

신용산역에 예술교육센터... 미래예술교육 변화 선도

서울시, 청소년 중심 교육센터 운영 권역별 10개소 등 25개 지역 설립 교육과정과 연계, 예술 체험 기회

서울 지하철 4호선 신용산역 인근에 청소년을 위한 '용산예술교육센터'(가칭)가 들어선다.

19일 서울문화재단에 따르면 오는 10월 용산구 한강로3가 63-70번지 일대에 용산예술교육센터가 문을 연다.

시설은 청소년 중심의 예술교육센터로서 다양한 문화자원과 거버넌스 기반의 예술교육 콘텐츠를 개발해 운영한다.

센터는 용산4구역 재개발조합이 서울시에 기부채납한 공공시설동 G동 5~6층과 F동 지상 1층에 3497㎡ 규모로 만들어진다. 청소년 대상 예술교육 LAB, 열린작업실, 예술가·전문가·시민들

〈용산예술교육센터 공간 구성 및 활용 계획〉

구분	공간	규모 (연면적)	활용계획(안)	주요시설
F동	북카페 (1층)	992.18㎡ (중층구조)	예술교육가(예술가)와 시민을 위한 교류공간	카페, 인포데스크, 직원 휴게공간
	공유라운지 (1.5층)		예술교육가(예술가), 전문가를 위한 공유공간	책 라운지, 아카데미룸, 회의실
G동	예술교육센터 (5층)	916.74㎡	청소년 대상 예술교육 LAB/열린 작업실	미디어홀, 미디어월, 공동연구실, 워크숍룸(녹음실 1개, 편집실 1개, VR룸), 기자재실 등
	예술교육센터 (6층)	1,006.74㎡	다목적 화이트박스 및 사무실	화이트박스 다목적홀, 분장실 2개, 회의실 1개, 무대조정실 1개, 사무실1개, 직원 휴게공간

을 위한 공유 및 교류 공간, 다목적 화이트박스 등으로 구성된다.

재단은 "용산예술교육센터는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인 청소년이 예술과 연계한 경험을 통해 자유로운 관계를 맺고 능동적인 태도로 상상력을 실현하는 공간"이라며 "다양한 영역의 예술교육가들이 상호 교류하고 연계·협력하는 거점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예술교육센터는 민선 7기 공약 사업 중 하나로 시는 권역별 10개소, 지

역밀착형 15개소 등 총 25개의 지역에 예술교육센터를 설립할 방침이다. 권역별 예술교육센터의 거점이 될 용산예술교육센터는 미래수요(뉴미디어, 디지털 리터러시, 사운드, 퍼포먼스, 융복합 장르)에 맞춘 예술교육 프로그램의 연구·개발을 지원한다.

센터는 학교 교육과정(장체 활동, 자유학기제, 직업체험)과 연계해 청소년들에게 새로운 예술체험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용산지역의 문화자원 및

다양한 문화예술 주제와 지속적으로 협업하고 네트워킹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타 영역과 연계·융합을 통해 예술에 그치지 않고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주체적인 인간 역량 키우기를 지향한다고 재단은 설명했다.

재단은 6~12월 현장전문가, 청소년, 지역 주체, 구청 등과 함께하는 '거버넌스 기반 개관시즌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내달부터 8월까지 내·외부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비전워크숍을 열고

용산예술교육센터의 정체성과 지향점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한다.

5~7월에는 창작자들과, 8~10월에는 청소년 그룹과 '공간 기획 프로젝트'를 추진, 용산예술교육센터의 공간 활용 방안을 모색한다.

아울러 재단은 이용자 주도로 인종, 종교, 언어, 성별, 성적체성의 차이에 관계없이 주체적으로 예술적 경험을 할 수 있는 개관시즌 프로그램을 마련해 선보일 예정이다.

올해 용산예술교육센터에 투입되는 예산은 총 13억8000만원이다. 당초 18억이 배정됐으나 코로나19 피해 긴급지원사업으로 인해 4억2000만원이 감액됐다.

재단은 "미래예술교육의 변화를 선도하고 예술교육 확산체계 정립의 거점이 될 용산예술교육센터의 개관과 운영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서울시, 고용위기 제조업에 200억 긴급수혈

4대 제조업종 50인 미만 사업체 업체당 최대 3000만원 지원 시제품 기획, 마케팅 등 사업비 목적

서울시가 코로나19로 촉발된 고용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주요 제조업종을 중심으로 긴급 자금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급감 등 영업 위기를 맞은 서울의 4대 제조업(의류봉제·수제화·인쇄·기계금속) 업체들에 긴급수혈 자금으로 총 200억원을 투입한다고 1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4대 제조업종에 속하는 50인 미만의 사업체로, 업체당 최대 300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을 받은 업체는 최소 3개월간 종사자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

지원받은 자금으로는 산업 활성화를 위해 시제품 기획·제작, 마케팅 등의 사업비 목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인건비·임대료·운영비 등으로는 쓸 수 없다.



서울시청. /손진영 기자 son@

지난해 매출이 없는 사실상 폐업상태인 업체나 지원 접수일 기준으로 국제·지방세를 체납한 업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1500여개 사업체가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우선 시는 4대 제조업 가운데 비중이 가장 큰 의류봉제·수제화 업종부터 총 110억원을 먼저 투입하고, 순차적으로 기계금속(33억원) 및 인쇄(50억원) 업종에도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의류봉제·수제화 업종의 긴급 자금 지원 신청 기간은 6월 5일부터 19일까지다.

지원 금액은 사업체 규모에 따라 10인 미만 사업장은 최대 1000만원, 10인 이상~20인 미만 사업장은 2000만원, 20인 이상~50인 미만 사업장은 3000만원이다.

지원금은 1차로 7월 초 지급되고, 모니터링을 거쳐 고용 유지 등이 확인되면 나머지 금액이 지급된다. 지원금을 받고서 종사자를 해고하는 등 고용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된 금액을 환수할 방침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도심 제조업 기반이 무너지면 지역경제가 무너지고 서울의 지속가능한 경제생태계가 흔들린다"며 "긴급수혈자금을 통해 운영 자체가 어려워진 제조업체들이 사업을 유지하고 종사자의 고용을 유지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워킹맘 절반, 코로나 스트레스 고위험군

서울시동부직장맘지원센터 진단 결과

아이를 키우며 일을 하는 20~40대 여성 가운데 절반가량이 코로나19 여파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서울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는 자녀 양육과 직장생활을 병행하는 부모들을 대상으로 지난 3월 25일~4월 15일 온라인 스트레스 자가진단을 받게 한 결과 참가자 308명 가운데 37.3%(115명)가 '스트레스 고위험군'으로, 54%(167명)가 '스트레스 잠재군'으로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

성별로 보면 여성 응답자 247명 가운데 45%(112명)가 고위험군이였다. 특히 20~40대 여성(196명) 중에는 52%(101명)가 고위험군으로, 42%(83명)가 잠재군으로 파악됐다.

센터는 지난 2~3월 진행한 모성보호 상담을 분석한 결과, 상담 건수는 총 950건으로 전년 동기(571건) 대비



/서울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66.4%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상담 내용으로는 코로나19와 관련한 가족돌봄휴가 등 긴급지원제도에 관한 문의가 많았다. 또 육아휴직 후 복직한 근로자에게 회사 측이 경영난을 이유로 부당전보 발령을 하거나 사직 압박을 한 사례, 육아휴직 중인 기간에 근로자에게 회사 측이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고 위협한 사례도 있었다.

센터는 이처럼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직장맘들을 지원하기 위해 변호사, 노무사, 심리상담사 등 12명으로 구성된 '2020 성평등노동인권지원단'을 발족했다. /김현정 기자

코로나영향 일손부족 농촌에 5000명 파견

서울-농촌 일손 교류 프로젝트

서울시는 구직자를 지역 농가와 연결해주는 '서울-농촌 일손 교류 프로젝트'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외국인 노동자를 구하기 어려워진 농촌과 실업자가 늘고 있는 도시의 상생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서울시는 왕복 교통수단과 보험료, 지역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내 이동과 인력 교육·배치, 농가는 임금 지급을 맡는 구조다.

민간단체 '푸마시'가 중간 지원조직으로 활동한다. 이 단체는 사전 실습, 현장 관리요원(농장 코디네이터) 파견 등을 담당한다.

시는 강원 양구, 전남 해남, 경기 여주 등 3개 지자체에서 1단계 사업을 시작한다. 이달 20~26일 참가자를 공개 모집하고 28일부터 6월 5일까지 7일간 일손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내달 중 수요 조사를 거쳐 파견 지역을 추가 선정하기로 했다. 시는 두 차례에 걸쳐 5000여명에게 단기 일자리를 제공할 방침이다. 참여를 원하는 서울 시민은 푸마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시는 하반기 중 '농촌일손뱅크'라는 농촌 일자리 종합 정보 플랫폼을 구축해 일손 교류 프로젝트의 상시 인프라를 조성할 계획이다. 운영 단체는 향후 공모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농촌 인력 문제



해법을 서울시에서, 서울의 일자리 부족 문제 탈출구를 농촌에서 모색함으로써 노동상생의 가치를 극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아파트 경비실에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

서울시, 경비실 1000곳에 무상 보급

서울시가 근무환경이 열악한 아파트 경비실에 무상으로 태양광 미니발전소를 설치해준다.

서울시는 올해 경비실 1000곳에 태양광 패널 설치를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냉·난방 설비 사용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경비실 태양광 무상보급 사업을 2018년 시작했다. 지난해까지 1518곳에 설치했으며 2022년까지 총 4500곳에 보급할 예정이다.

올해는 1000곳에 설치를 지원한다. 사후관리도 보급 업체가 5년간 무상으로 제공하므로 설치부터 5년까지 아파트에서 별도로 부담하는 비용은 없다.



아파트 경비실에 설치된 태양광 패널. /서울시

설치를 희망하는 아파트는 내달 5일까지 해당 자치구 에너지 관련 부서(환경과)에 신청하면 된다.

김호성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장은 "아파트 관리 주체의 동의를 필요한 만큼 아파트 주민, 관리사무소 등의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